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6월 23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22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6. 22. (수)	담당부서	산업인력과
담당과장	박영삼 과장 (044-203-4220)	담 당 자	원미연 사무관(044-203-4223)

창의적인 융합인재가 신산업을 창출한다!

- 「2016 신산업융합인재포럼」 개최 -

◇ (산업계) 전공에 대한 **전문성과 함께** 타 산업 분야에 대한 **적응성을 가진 인재**를 미래 신산업 인재상으로 제시

◇ (학계) 유연성있는 융합교과 구성, 기업 중심의 문제해결형 산학협력, 능력중심 채용 등을 통한 **신산업 창출 선순환 시스템 구축** 제안

◇ 이관섭 차관, "**미래산업 성장동력은 인재**이며, 기업과 대학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**과감한 투자**가 필요, 이를 통해 **경쟁력 있는 신산업창출로**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만들어야"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: 주형환)는 산-학간 연계를 강화하고, 미래 융합 신산업을 선도할 인재양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22일(수) 오후 2시 서울 제이더블유(JW)메리어트호텔에서 「2016 **신산업융합인재포럼」을 열었다.**

< 2016 신산업융합인재포럼 개요 >

◈ 일시·장소 : '16..6.22(수) 14:00~17:00 제이더블유(JW)메리어트 호텔
◈ 주최/주관 : 산업통상자원부 / 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, SC
◈ 참 석 자 : 관련 산·학·연 200여명
◈ 내 용 : 자율주행 자동차,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융합 신산업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방향과 대학의 교육현황 및 발전방안 발표 등

□ 신산업융합인재포럼은 **주력산업의 성장이 정체**되고 기존 세계 산업 판도를 뒤바꿀 **4차 산업혁명**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,

○ 산업계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**우리 신산업을 선도할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방안**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.

□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**자율주행 자동차, 착용형 장치(웨어러블 디바이스), 스마트홈**과 같은 융합산업분야 기업의 인력소요 및 학계의 교육현황을 살피고, 해당 분야에서 **신산업시장을 창출할 창의적인 인재 양성방안**에 대해 전문가가 참석해 토의를 했다.

○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는 **친환경, 안전, 편의성**을 갖춘 제품 개발을 위해 **기초 과학기술의 융복합**으로 미래자동차를 구현

- 기업은 기초와 응용의 융합 마인드(대학)와 산학연 공동연구경험(기업)이 긴밀히 결합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

- 대학은 관련산업 특성을 이해하는 창의적 인재(**New Player**)**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, 협업**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교육방안이 필요

○ 착용형 기기(웨어러블 디바이스)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바탕으로 부품 제조업, 소프트웨어, 통신, 제반서비스업(의료서비스 등)가 결합한 산업의 형태로 지속적인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.

- 기업은 **전문성을 보유**하면서도 타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**적응성(Adaptability)을 균형있게 구현**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

- 대학은 SW 분야에서 기업의 프로그래밍 재교육 이후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**최소 실무능력과 심화된 전공지식을 균형있게**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

○ 사물인터넷(IoT) 융합산업 분야는 **플랫폼을 기반**으로 비즈니스, 콘텐츠, 기기가 모두 결합된 **초연결사회를 도래**

- 기업은 제품이 아닌 **플랫폼**을 창조하며, 이를 바탕으로 **신산업 생태계를 만드는** 인재상을 원함

- 대학은 이에 맞는 디자인, 엔지니어링, 비즈니스 요소를 결합한 융합 교육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

□ 이관섭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**융합신산업과 창의적 인재에 대한 과감한 투자**가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구조조정 등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.

○ 특히, 5대 융합신산업* 분야에 대한 **기업의 집중 투자계획에 병행**하여 정부는 신산업 투자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완화를 강력히 추진중임을 강조하면서,

* 5대 융합신산업: 에너지 신산업, 신소재, 고급소비재, 바이오헬스, 정보통신기술(ICT) 융합

○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산-학간 기존의 의사소통을 넘어, **화학적*으로 함께하는 산학협력 방안**을 제안했다.

* 공학, 비즈니스,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적 영역이 결합된 산업 현장의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 협력을 학부 등 기초인재 양성 단계부터 수행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인재양성 정책에 적극 참고 및 반영 추진할 예정이며, 향후 **기업과 학계간 산-학 협력 네트워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**하기로 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원미연 사무관(044-203-422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2016 신산업융합인재포럼 개최 계획

1. 개최 배경

○ 미래융합 **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청년인재 양성**을 위한 **산업계와 공학교육혁신센터 간 장기적 협력 네크워크 구축 토대 마련**

- 자율주행차(자동차), 웨어러블디바이스(SW), 스마트홈(전자) 등 **신산업 융합분야의 인재 수요와 대학 융합교육간 연계 추진**

2. 행사 개요

○ 일시 및 장소 : **'16.6.22(수) 14:00~17:30,**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
※ 주최: 산업통상자원부, 주관: 공학교육혁신센터,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

○ 참석 : **차관님, KIAT** 정재훈 원장,
공학교육혁신센터 등 산·학·연 관계자 250여명

○ **논의 주제**

① **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의 인력소요 및 요구 인재상**
② 산업계 수요에 맞춘 **대학의 융합인재 교육현황 및 발전방안**
③ 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**산업계-대학 연계 강화방안** 토의

○ **차관님 역할: 환영사 및 기념촬영**

3. 세부 행사계획(안)

구 분	주요 내용	비고
14:00-14:25	**개회사(차관님)**, 축사(이채익의원, 윤한홍의원, 최순자 총장) 환영사(정재훈 KIAT 원장), 기념촬영 * 사회 : 인하대 신수봉 교수	**차관님,** **이채익의원,윤한홍의원** 정재훈 원장, 최순자 총장
14:25-14:55	**기업에서 바라본 융합인재상**	손욱 센터장 (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)
14:55-16:25	**주제발표(6명)** - **(기업)** 현대차(자율주행차), 삼성전자(전자 융합산업), 메디코넥스(웨어러블 디바이스) - **(대학)** 인하대, 한양대, 숭실대	산업체/대학 교차발표
16:25-16:40	**Break time**	
16:40-17:30	**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계 대학간 연계방안**	패널토의(6인)

참고 2 발표자료 요약

자동차

미래자동차 신기술 융합 인재상 (현대자동차)

□ 미래의 산업과 사회를 주도할 4대 핵심 기술은 ①인지과학 ②나노기술 ③정보기술 ④생명공학

○ 자동차 분야에서는 친환경, 안전, 편의성을 목적으로 **▲인공지능 ▲에너지기술 ▲정보통신기술 ▲인지과학 ▲환경기술**이 적용 트렌드

□ 미래 융합기술 산업 사회에서 기업은 **①경험과 역량(실행력), ②리더쉽과 조화(태도), ③차별화 전략(통찰력)을 갖춘 인재**를 요구

○ 대학의 영역은 **Potential**(기초지식, 원리, 생각, 도전, 꿈)이며, 기업은 **Value**(응용, 설계, 경쟁우위, 역량, 협력, 열정)의 역할

□ 이를 위해 **기초와 응용의 융합마인드(대학)**와 **산학연 공동연구 경험(기업)**이 긴밀히 결합되어야 할 필요

☞ **기초 과학기술의 융복합**으로 미래 자동차 구현

☞ **대학-기업간 질적 교류와 투자 확대**로 실질적 인재 육성

자율주행자동차 대학교육현황 및 발전방안 (인하대학교)

□ 미래 자동차 분야 핵심 기술은 네트워크 내장, 커뮤니케이션, 사이버 시큐리티, 휴먼 인터페이스, 시스템 엔지니어링, 물체인식 등임

□ 이와 관련 인재분야 현 상황은,

○ 협의의 측면에서는 **정보통신, 지능제어, 첨단교통, 인간공학 등 융합 분야 인력**이 부족한 상황

○ 광의의 측면에서는 관련 **업종간 산업특성 이해 부족으로 New Player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, 협업**할 수 있는 기회 부족

□ 대학의 융합교육 방향

○ 전공기초교육 이외에도 **고난이도의 융합교육** 필요

○ 경직적 학제의 융합학과보다는 **유연한 융합교과목**이 필요

○ 교과 지식을 넘어, **근본적인 융합형 사고역량 강화** 필요

소프트웨어융합 웨어러블

웨어러블 융합산업 인재상 (메디코넥스)

□ 인터넷 접속 기기는 PC → 스마트폰 → **웨어러블 디바이스**로 빠르게 변화중

○ 기존 스마트폰 연동에서 벗어나 **독립적인 기기**로 진화

○ **부품업체, 기기 제조업체, 소프트웨어, 통신사, 제반 서비스업체*가 결합**된 산업이 웨어러블 산업의 미래

* 현재는 주로 의료, 건강관리 등에서 비즈니스가 창출중이며,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전망

□ 웨어러블 분야의 인재상은,

○ 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

○ 타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**Adaptability(적응성)을 구현**할 수 있는 인재

☞ **지속적인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**를 육성할 필요

대학 SW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 (한양대학교)

□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업과 학생간 괴리 존재

○ **(기업)** 대부분 졸업생들은 **프로그래밍 실무가 미흡**하고 40%는 재교육 후에도 개발업무에 부적절

○ **(학생)** 기업은 능력보다는 **대학 순위**로 인재 선발. 전문성 확보 유인 미약

☞ 인재를 대하는 **기업의 자세**와, 자신의 전공을 대하는 **학생의 자세**가 **동시에 바뀌어야 하는 산업**

□ **발전 방향**

○ **(대학)** 균형(최소 실무능력+심화 전공지식), 비인지적 능력(소통, 협력, 끈기, 도전), 융합(새로운 분야를 긍정하는 학습능력)을 교육

* 수준미달자에 대한 과감한 제재, 프로젝트 기반 교육, 내부 자체교육 강화

○ **(기업) 능력 중심 채용, 소수정예, 성과에 따른 보상 차별화, 체계적인 내부 교육과정**을 통해 열린 고용환경을 구성

IoT 융합산업

전자(IoT) 융합산업 분야 인재상 (삼성전자)

□ 전자 융합산업의 미래는 **"플랫폼"**으로 정의 가능

○ 정보통신혁명으로 모든 기기들이 연결되는 **초연결사회** 도래

○ **플랫폼**을 기반으로 **비즈니스, 콘텐츠, 기기가 모두 결합**

* 2020년 IoT 산업 예상규모는 1조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

□ 이를 선점하기 위한 중요 요소는 ▲사용자 경험 및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▲새로운 혁신성*임

* 우버, 페이스북, 알리바바, Air bnb 등의 만들어낸 혁신적 시장창조성

□ 따라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

○ 단일 제품이 아닌 **플랫폼을 보고, 창조**하며,

○ 플랫폼만이 아니라, 이를 기반으로 **생태계를 창조**하는 인재

IoT 분야 대학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(숭실대학교)

□ **직물・섬유소재 분야도 IoT를 활용**한 다양한 시도를 전개중

○ 상의 부착형 카라형 자전거 에어백, 핸즈프리 긴급수신 가능 안전장갑, 진동저감 안전장갑, 전자 섬유(구글이 개발중) 등

□ 도전적 정신*, 디자인적 사고**, 기독교 정신***이 융합된 창의적 21세기 융합인재를 목표로 ICT 융합 스마트소재 사업을 진행중

* 제품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개인적 경쟁력 확보

** 새로운 안목과 합리적 발상을 통한 '적정기술' 및 '적정디자인' 개발

*** 공학 기술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품 개발

□ 발전방향

○ **디자인, 엔지니어링, 비즈니스 교육 요소를 결합**하여 사회공감형 제품을 기획・개발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 (융합 커리큘럼 운영)

* (디자인) 건축학부 (엔지니어링) 화학공학과, 유기신소재・섬유공학과 (비즈니스) 산업・정보시스템 공학과